

# 12초 악수·140분 ‘담판’·역사적 서명… 숨가뺐던 하루

이모저모

'세기의 만남'  
북미정상 첫 만남에서 서명까지  
현지시간 기준

오전 9시4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첫 대면.  
악수와 함께 인사



오전 9시10분~9시52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환담 및 모두 발언.  
일대일 단독 회담과 발코니 대화



오전 10시30분~11시34분  
확대 정상회담, 양측 핵심브리핑 3명씩 배석



오전 11시34분~12시24분 (약 50분간)  
한·미·북·중 4국으로 실무진들과 업무 오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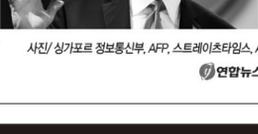
오전 12시30분  
북미 정상, 통역없이 카펠라 호텔 산책



오전 1시42분  
북미 정상, 공동합의문에 서명



오전 4시  
트럼프 대통령 회담결과 기자회견



사진/싱가포르 정보통신부, AFP, 스톡스테이츠타임스, AP  
연합뉴스

9시 4분 양국 정상 첫 대면...36분간 단독회담  
화기에애한 오찬 마치고 1시 39분 합의문 서명

세계의 눈이 쏠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기까지 짧지만 땀 뻘뻘한 한나절을 함께 했다.

한국전쟁 정전 후 70년 가까이 적대관계를 이어온 양국 정상의 만남이라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정상은 압축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전 9시)께 숙소인 시내 상그릴라 호텔을 떠나 정상회담이 열리는 센트럴 카펠라 호텔로 향했다.

잠시 뒤인 오전 8시 12분께 김 위원장도 하룻밤을 머문 세인트 리지스 호텔에서 무장한 경호차량 20여대의 호위를 받으며 회담장으로 출발했다.

양 정상의 숙소는 불과 570m 거리여서 앞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장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 위원장 일행이 숙소 출발 후 약 20분이 지난 오전 8시 30분께 카펠라 호텔에 도착했다.

차 안에서 대기하던 김 위원장은 오전 8시 53분께야 통이 넓은 검은색 바지에 검정색 인민복 차림으로 왼쪽 겨드랑이에는 서류가방을, 오른손에는 갈색 뷔테안경을 들고 차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는 회담 직전인 오전 8시 59분께 회담장 앞에 도착했고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다.

회담장 입구 레드카펫에서 비호소 한 자리에서 선 양국 정상은 미소를 머금고 걸어 나와 12초간 악수를 하며 가벼운 담소를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어깨를 가볍게 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마쳤고 이후 단독 회담장

으로 향했다. 회담장에 들어서기 전 두 정상은 다시 손을 맞잡고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이 엄청나게 성공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하고 이뤄진 단독 정상회담은 오전 9시 16분께부터 9시 52분까지 약 36분간 진행됐다.

이후 단독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2층 옥외 통로를 따라 확대정상회담 장소로 함께 이동했는데 잠시 발코니 앞에서 담소를 나누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두 정상은 곧이어 배석자들이 함께하는 확대정상회담에 들어갔다.

확대정상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 도전에 직면하겠지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싼 온갖 회의론과 억측들을 극복했고 나는 이번 회담이 평화를 위해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회담이 평화를 위한 좋은 전주곡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도전들)을 해결할 것이고 나는 당신(김 위원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길 고대한다”고 회담했다.

100여분간 진행된 확대정상회담은 오전 11시 34분께 끝났다. 이어진 업무 오찬 메뉴에 햄버거는 포함되지 않아 기대를 모았던 양국 정상의 ‘햄버거 대화’는 불발됐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의미를 살려 미국과 북한, 싱가포르 현지 음식이 어우러졌다.

단독·확대정상회담과 50여분간의 오찬까지 함께한 두 정상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오찬을 마친 뒤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의 오찬장을 나섰고 통역 없이 잠시 건물 밖으로 나와 카펠라 호텔 정원을 1분여 동안 산책했다.

이후 이날 오후 1시 39분께 서명식장의 옥중한 문을 열고 함께 나란히 걸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대형 원목 테이블 앞에 앉았고 이어 각각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건네는 공동성명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명식이 시작된 지 6분여 만인 오후 1시 45분께 자리에서 일어나 제차 약속하고 환하게 웃으며 서명식장을 나섰다.

공식적인 회담 일정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15분께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 35분 미국으로 출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연합뉴스

### 공동성명 전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 ‘도보다리 독대’ 같았던 ‘카펠라 산책’

트럼프·김정은, 비핵화·체제 보장 교감 나눈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양국의 공동 합의문 서명에 앞서 회담장 주변을 짧게 산책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시사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업무 오찬을 숨가쁘게 이어갔다.

140분간의 회담과 50분간의 오찬을 마

친 두 정상은 건물 밖으로 나와 카펠라 호텔 정원을 짧게 산책했다.

산책 시간은 1분 정도로 매우 짧았지만 두 정상은 통역 없이 정원을 거닐며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에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정상회담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 정말로 아주 긍정적”이라며 “서명하러 이동 중”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카펠라 산책’은 길지는 않았지만,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독대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온다.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진행된 30분간의 도보다리 대화에서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번영에 대한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눴을 것이라는 해석이 이견이 없다.

이곳에서 단독으로 한 남북 정상의 친교는 이후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을 때 ‘번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제안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혈당조절

##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 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신약번호 : 21719239

NAVER 유한바이오 백세생활건강 · 검색

## 010-3598-7080

##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 매매가 28억 ◆ (조정가)

##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 급 식당 임대

- 서구 쌍촌동 965-12번지 1층
- 약20평 보증금 1천만 월 90만
- 시설 : 에어컨, TV, 주방시설 완비  
냉장고 기타비품 풀 완비 (약 4천만원 상당)
- 급 : 1천2백만에 양도
- 부동산 환영

## 감정가 40%이하 급 모델

- 전남지방 방 15개
- 감정 5억6천 급 매매가
- 3억5천 담보제공가능

## 감정가 30%이하 급 모델

- 광주 북구 방 30개
- 감정 11억 급 매매가 7억8천
- 현 법인소유 이전비 없음

문의 010-7527-7400